

카카오게임즈 “대중성 무기로 ‘3N’ 독주 막는다”

(넷마블게임즈·넥슨·엔씨소프트)

kakao games

개발 전문 ‘프렌즈게임즈’ 출범
‘캐주얼 게임사’로 입지 굳힐 것
IPO 추진, 하반기 상장완료 목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렌즈게임즈' 출범을 알리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대중적으로 편하게 먹는 음식이 오래 살아남듯 대중성이라는 키워드로 캐주얼 게임의 강점을 살려나갈 것이다.”

넷마블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등이 이른바 ‘3N’의 독주 속에 ‘루키’로 떠오른 카카오게임즈가 개발 전문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를 출범하고, 캐주얼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의 골프 예약 서비스와 홀트레이닝 사업도 펼친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7일 서울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18 프리뷰’ 기자간담회에서 “프렌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프렌즈게임즈의 경쟁력을 세

워 대중성을 강점으로 독보적인 캐주얼 게임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프렌즈게임즈는 이날 카카오게임즈가 정식 출범을 선언한 개발자회사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프렌즈게임즈 초대 대표를 맡는다.

권미진, 김동준, 박영호 3명의 책임프로듀서를 중심으로 권현미, 박우람, 윤경

옥, 김준현, 최우규 PD가 각 개발 조직을 이끈다. 올해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큰 유통사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게임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선언이다.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은 프렌즈게임즈에서 담당하고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유통을 담당하는 식이다.

개발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는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프렌즈’를 활용해 ‘프렌즈스타운’, ‘프렌즈레이싱’, ‘프렌즈골프’ 등 신작 프렌즈 게임과 공포게임인 ‘화이트데이’ IP를 활용한 가상현실(VR) 게임 ‘화이트데이:담력시험’을 올해 내놓는다. 카카오게임즈는 기존처럼 모바일과 PC 온라인 등 게임 유통에 전념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PC게임 ‘배틀그라운드’ 저변 확대에 나서고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고객 접점 마케팅을 강화한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약 20종의 라인업을 내놓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도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회사 카카오VX에서는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골프 부킹 서비스’와 홀트레이닝인 ‘홀트’ 등 신규 사업도 펼친다. 골프 부킹 서비스는 카카오의 AI 플랫폼 ‘챗봇’을 탑재해 이용자의 골프 스타일과 패턴 등을 분석하고, 카카오페이·카카오 드라이브와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에서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 운동을 할 때 자세를 교정해주고 따라할 수 있는 홀트레이닝

서비스인 ‘홀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기업 공개에도 나선다. 카카오게임즈의 예상 시가총액은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재관 카카오게임즈 CFO는 “상반기 중에 기업공개(IPO) 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 상장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IT 업체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게임사도 코스피에 상장하는 사례가 생겨 고민이 많다.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궁훈 대표는 최근 3N이 독주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위치에 대해 “시가총액만으로 회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카카오게임즈의 강점은 대중성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접근과는 다르다. 이들이 가진 게임 개발 등 강점은 보완하겠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캐주얼 게임이 가진 대중성으로 독보적 게임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재관 카카오게임즈 CFO는 “상반기 중에 기업공개(IPO) 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 상장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IT 업체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게임사도 코스피에 상장하는 사례가 생겨 고민이 많다.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궁훈 대표는 최근 3N이 독주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위치에 대해 “시가총액만으로 회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카카오게임즈의 강점은 대중성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접근과는 다르다. 이들이 가진 게임 개발 등 강점은 보완하겠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캐주얼 게임이 가진 대중성으로 독보적 게임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서 시연모델이 5G 기술을 이용한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체험하고 있다. /KT

광화문서 만나는 평창... “5G 느껴보세요”

KT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 구축

KT는 서울에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세계 최초 5G’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를 구축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광화문 KT 라이브 사이트는 올림픽이 개막하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는 일반 시민들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5G 네트워크와 ICT 기술이 접목된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약 250평 규모의 2층 높이 컨테이너 부스로 건설된 KT 라이브사이트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중앙광장에 위치해 있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 방문하는 관람객은 평창이나 강릉에 가지 않더라도 5G 단말에서 옴니뷰와 같은 실감형 서비스로 5G 속도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가

상공간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수의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해 5G로 다각도 영상을 받아보는 ‘타입슬라이스’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서는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통해 직접 봅슬레이 선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봅슬레이 챌린지’, 5G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초저지연성을 활용해 모션 인식으로 봅슬레이, 드론, 자동차를 조종해 볼 수 있는 ‘커넥티드 스피드’ 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 2층에는 오후 5시부터 KT 광화문 WEST 사옥 전면에 송출되는 미디어파사드로 올림픽 주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라운지’가 있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는 25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뷰티레스트 블랙’ 신혼부부 혼수템으로 인기

(프리미엄 침대)

시몬스 ‘최고급 매트리스 컬렉션’

작년 120억 판매, 65% 신혼부부

행복한 침실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시몬스의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이 폭발적인 인기다. 초고가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선보인 국산 토종 브랜드가 신혼부부들의 혼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7일 시몬스에 따르면 2016년 7월에 선보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지난해까지 총 150억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리며 고급 브랜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국내업체에선 5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침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은 매트리스와 프레임 조합에 따라 500만~200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약 12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특히 시몬스의 자체 분석 결과 120억원 가운데 약 65%의 고객이 혼수용으로 구입했다. 지난해만 보면 1000만원대 전후인 뷰티레스트 블랙 구매 고객 10명 중 6.5명이 신혼부부였던 셈이다.



시몬스 침대 뷰티레스트 블랙.

시몬스 갤러리 서울 논현점 조현정 슬립마스터는 “봄 웨딩 시즌을 앞두고 뷰티레스트 블랙을 찾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프리미엄 혼수에 대한 니즈가 맞물리면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뷰티레스트 블랙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한국 시몬스 고유의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 최고급 소재를 결합해 선보인 프리미엄 침대로 꼽힌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브랜드 원칙을 기반으로 수면 전문 브랜드의 본질인 최상의 수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2년 전 탄생했다. 뷰티레스트 블랙 전용 포스코사의 삼중 나선 구조 하이카본 스프링 강선으로 만들어진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은 섬세하고도 세련된 지지력을 구현한다. 또 신체의 무게 중심과 곡선을 최적으로 지지하는 ‘조닝’ 시스템, 50여종의 프리미엄 내장재를 이상적으로 조합한 ‘레이어링’ 기술도 더해졌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오는 3월 25일 까지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몰에서 ‘웨딩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밀도·강성 높은 범용 공작기계 대거 출시

현대위아 신제품 13종 선보

현대위아가 새해를 맞아 공작기계 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위아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종의 공작기계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수직형 머시닝센터(KF-B시리즈) 5종과 수평형 선반(HD시리즈) 8종 등 총 13종이다. 이들 기종은 시장 수요가 매우 높은 범용기종이다.

현대위아는 범용 공작기계 시장에 강성과 정밀도를 크게 높인 신제품을 대규모로 투입,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공격적

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F-B시리즈 중 KF790BM과 KF960BM은 중대형 금형가공에 특화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매끈한 금형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밀도를 크게 높였다.

범용 머시닝센터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하는 KF5700B, KF6700B, KF7700B 역시 높은 가공 안정성이 특징이다. 가공을 진행하는 주축의 모터와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해 소음과 진동 발열을 최소화했다.

HD시리즈는 중절사용 CNC선반 HD2600과 HD3100으로 나눠 출시한다. 여기에 각 기종 별로 가공물을 올리는 베드



의 크기와 공구대의 특성에 따라 최대 8종으로 구성, 고객의 선택폭을 대폭 넓혔다. 현대위아는 HD시리즈를 찾는 고객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깎는 ‘중절삭’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강성을 극대화해 만들었다. 최첨단 구조해석 기법을 적용해 경쟁사 대비 1t 이상 장비의 중량을 올려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열변위는 최소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디자인·안전·편의성 UP... ‘뉴 푸조 308’

푸조의 공식 수입원인 한볼모터스가 프리미엄 해치백 푸조 308의 부분 변경 모델인 ‘뉴 푸조 308’을 출시한다.

7일 한볼모터스에 따르면 뉴 푸조 308은 지난 2014년 6월 국내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스포티한 디자인 변화와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뉴 푸조 308은 알티르와 GT라인, GT, SW 등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전면부는 뉴 푸조 3008 SUV

부터 시작된 크롬 소재의 입체적인 프론트 그릴을 적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가격은 알티르 3190만원, GT라인 3450만원, SW 3490만원, GT 39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